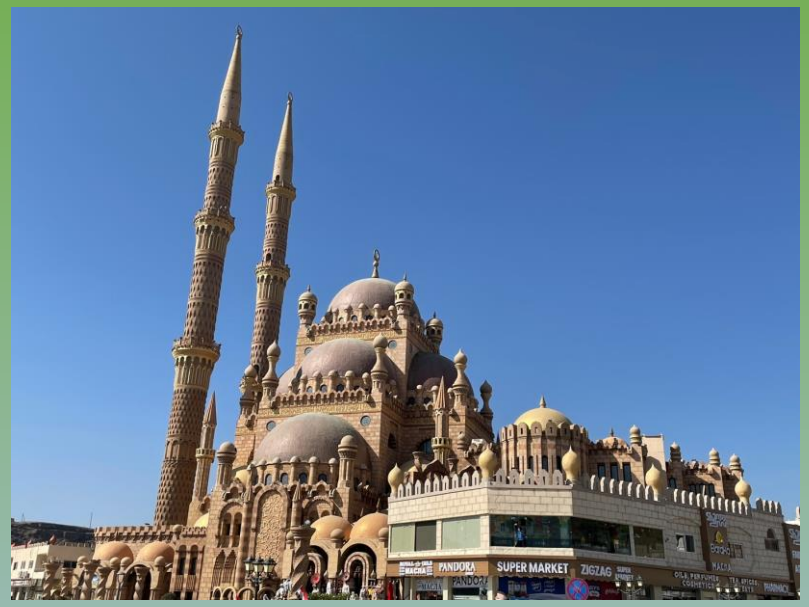
외교부
Ministry of Foreign Affairs

샴엘쉐이크 기후변화총회 (COP27) 결과와 과제

김 효 은
기후변화대사

COP27
SHARM EL-SHEIKH
EGYPT 2022


SUPER MARKET
ZIGZAG

United Nations
Climate Change

COP 27 회의 구조

11.6.(일)	11.7.(월) ~ 8.(화)	11.9.(수) ~ 14.(월)	11.15.(화) ~ 16.(수)	11.17~18.(금)
개회식	정상회의	UN기후협상 회의 산하기구 회의	장관회의	폐회식
비공식 협상 회의, 각종 부대행사 등 병행				

	1주차						
일자	11.6(일)	11.7(월)	11.8(화)	11.9(수)	11.10(목)	11.11(금)	11.12(토)
주제				재원	과학 및 청년	탈탄소	적응 및 농업
행사	10:00-13:00 COP27 개막식 (COP/CMP/CMA) 17:00-18:00 총회 공동 발언	10:00-18:00 정상회의 12:00-17:00 GST 기술대화	10:00-13:00 정상회의 16:00-19:00 GST 기술대화	10:00-17:00 GST 기술대화 14:00-17:00 신규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	10:00-19:00 GST 기술대화 13:15-14:45 투명성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	10:00-18:00 제13차 촉진적대화(FSV) 11:00-13:00 GST 기술대화 폐막	10:00-13:00 제13차 촉진적대화(FSV) 18:00-20:00 부속기구회의(SBSTA/SBI) 폐회
협상		10:00-18:00 COP/CMP/CMA* /부속기구	10:00-18:00 COP/CMP/CMA /부속기구	10:00-18:00 COP/CMP/CMA /부속기구	10:00-18:00 COP/CMP/CMA /부속기구		

	2주차				
일자	11.14(월)	11.15(화)	11.16(수)	11.17(목)	11.18(금)
주제	젠더	시민사회, 에너지	생물다양성	해결책	
행사	10:00-13:00 제5차 기후 재원 고위급 대화 15:00-18:00 Pre-2030 의욕 장관급 대화	10:00-18:00 장관급회의 15:00-18:00 COP27 의장단 주최 젠더 대화	장관급회의	15:00-18:00 COP27 폐막회의 (COP/CMP/CMA)	10:00-18:00 COP27 폐막회의 (COP/CMP/CMA)
협상	10:00-18:00 COP/CMP/CMA	10:00-18:00 COP/CMP/CMA	10:00-18:00 COP/CMP /CMA	10:00-15:00 COP/CMP/CMA	

▪ COP 27 이 직면했던 국제 상황 : 도전과 기회 혼재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→ 글로벌 에너지 위기
-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→ 봉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
-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→ 범세계적 인플레이션
- 미•중 갈등, 반러시아 연대(미국 및 유럽 중심)와 러시아 옹호국(중국, 터키 등)간 냉전
- 전대미문의 자연재해 → 파키스탄 홍수, 서유럽 폭염 등
- 미국 및 유럽 주도 글로벌 기후 질서 형성 추진 → CBAM, IPEF(Pillar 3), 기후클럽, GFANZ, FMC 등

▪ COP27 정상회의 주요결과 (COP 정상회의 관례화?)

- 112개국 정상 참석
  - ✓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도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
  - ✓ 개도국(특히 아프리카) 정상 대거 참석 → 아프리카 COP
  - ✓ 바이든 미대통령(11.11), 룰라 브라질 당선인(11.16) 참석 → 강한 의지표명
  - ✓ 한국(나경원 특사)과 중국(시젠화 특사) 특별 연설
- 5개 주제 정상 라운드테이블 개최
  - ✓ 공정전환, 혁신금융, 에너지의 미래, 식량안보, 기후취약그룹을 주제로 논의
  - ✓ 개도국 및 취약국 지원, 다양한 금융재원 확보, 미래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,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 등 강조
- 중국, 인도, ASEAN 정상 불참 (G20 및 APEC 정상회의 등 일정)
- 녹색해운, 기후클럽, 산림 등 정상급 이니셔티브 진행
  - ✓ 한국 부산항-미국 타코마항 녹색해운항로(Green Shipping Corridor) 발족

▪ COP 27 주요결과 : 샤름엘쉐이크 이행계획

- 파리협정 주요 내용인 감축, 적응, 재원, 기술, 역량배양에 더하여 손실과 피해, 에너지, 해양, 산림, 농업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행동계획 도출

- 손실과 피해(Loss & Damage) 대응 : 개도국 최우선 의제
  - ✓ COP 최초로 정식의제로 채택 : 92년 기후변화협약 및 15년 파리협정에 문안 반영 이후 최대 성과
  - ✓ 손실과 피해 문제를 대응할 펀드를 창설하기로 원칙적 합의 → 전환위원회 설치, 운영 방안을 2023년까지 완료키로 합의
  - ✓ 책임(liability)과 배상(compensation)문제가 아님(COP 결정문)
  - ✓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각종 연구,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‘산티아고 네트워크’ 사무국과 자문기구도 설치 합의

▪ COP 27 주요결과

- 감축 : 감축 작업프로그램 합의
  - ✓ 2026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행동 강화를 위해 민간도 참여한 대화체 구성, 부문별 및 주제별 감축방안 협의
- 재원 : Post 2025 기후재원 목표 논의 개시
  - ✓ 2024년 타결 목표 (재원공여국 확대, 민간 및 혁신재원 동원 등이 쟁점)
- 적응 : 글로벌프레임워크 설립 합의
  - ✓ 범지구적 적응목표 개발을 위한 포괄적 논의 개시
- 정의로운 전환
  - ✓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 작성키로 합의, 매년 각료급 라운드테이블
- 파리협정 6조
  - ✓ 기술지침 일부채택 →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최소 기반 마련

▪ COP 27 계기 국제정세

-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(11.8) 선방 →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 예상
- 브라질 Lula 전대통령의 당선(10.31) → 산림파괴 중단 발표 등 친기후정책 선언, 2025년 COP30 아마존 개최의사 표명
- G20 정상회의 계기 미•중 정상회담(11.14)→ 기후변화 대응 양국간 협력 복원 합의
- G7•인도네시아 “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쉽(JEPT)” 합의(11.15)→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에 200억불 지원
- G20 정상들의 1.5도 목표 지지 합의 → COP27이 글래스고 수준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 발송

▪ COP27 의 평가

- 개도국 핵심 관심사 반영 성과 → 명실공회 개도국 COP
  - ✓ 손실과 피해 정식 의제화 및 기금 설립 원칙적 합의
  - ✓ 적응 및 재원 등 여타 의제에서도 개도국 입장 강력 반영
  - ✓ 감축분야는 선진국의 요구 미반영 → 감축분야에서 글래스고보다 진전을 달성하지는 못한 아쉬움
    - ➢ 선진국은 IPCC 보고서의 2025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, 脫화석연료(석탄, 석유, 가스 포함) 촉구 등 COP26 보다 진전된 감축노력을 주장했으나 결과문서 반영에 실패
- 에너지 및 식량위기 속에서도 정상들의 기후대응 의지 재확인 성과
- 의장국 이집트의 강한 개도국 지원 의지
  - ✓ 개최 이전부터 아프리카 COP, 적응 COP 등 개도국 의제 강조

▪ COP 27 결과 한국에의 시사점

- 脫화석연료 논의 대응 : 脫석탄, 脫석유•가스, 화석연료보조금 철폐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기 시작

  ✓ 유럽, 군소도서국은 COP26에서 합의한 석탄발전 완화 및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관련 이행 로드맵과 매년 이행 보고서 제출부터 요구

  ✓ 글래스고 coal phase-down, fossil fuel subsidy phase-out 에서 더 나아가 fossil fuel phase-out 까지 등장

  ✓ 남아공 및 인도네시아 JETP 의 핵심도 석탄발전 종식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

↓

국내 석탄발전소,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의 공적금융 투입 등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립 필요

▪ COP 27 결과 한국에의 시사점

- 재원공여국 확대 논의 대응 : 선진국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공여국 카테고리는 더 이상 무의미 →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공여국 확대 강력 주장
  - ✓ 1992년 대비 현재 중국 온실가스 배출은 4배 증가, 국민소득은 34배 증가
- 2023년 설립되는 손실과 피해 기금, 본격화되는 Post 2025 재원 논의 과정에서 미국 및 EU는 중국, 사우디 등 거대 경제국의 공여 참여를 적극 개진할 것으로 전망
- 한국은 G20 회원국, 고소득 국가(HIC, 세계은행 기준), 주요경제국, 다배출국가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
  - ✓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범정부적 도출 필요

감사합니다.
Thank you!